

# 문헌설화 속 첩(妾) 소재 설화 연구

- 『기문총화』를 중심으로 -

이항애\*

「차례」

1. 서론
2. 첩과 남성의 결연 과정
  - 2.1. 애정에 의한 결연
  - 2.2. 상황에 의한 결연
3. 첩 소재 설화의 의미
  - 3.1. 여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한 남성의 수혜
  - 3.2. 남성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첩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문헌설화에서 첩을 소재로 한 설화를 통해 남성과 첩의 관계를 살피고 이 설화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처가 중매를 통해 정식으로 관계를 맺은 대상이라면 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를 맺는다. 설화 속 남성과 첩의 결연 과정은 애정에 의한 결연과 상황에 의한 결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결연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만남-이별-만남 이다.

설화 속에서 첩은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처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남성 자신이 극복하기 어려운 결핍을 타개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거나 남성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강사

채워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첩은 양반 남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환상적인 장치이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춰 다양하게 첩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설화 속 첩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양반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첩을 두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첩을 소재로 한 설화에는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남성들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핵심어: 『기문총화』, 문헌설화, 첩, 결핍의 충족, 은폐된 욕망

## 1. 서론

본고는 문헌설화 속 첩을 소재로 한 설화에서 남성과 첩의 관계를 통해 그 설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첩은 처와 달리 남성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취해진 여성이다. 처가 중매를 통해 집안 대 집안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 맺는다.<sup>1)</sup> 문헌설화에도 남성이 첩이 될 여성과 관계 맺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연을 맺는 방식이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 맺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나눠 살펴본다. 첫 번째가 애정에 의한 결연 방식이고 두 번째가 상황에 의한 결연 방식이다. 애정에 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말한다. 두 번째, 상황에 의한 결연은 남성이 첩을 두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우연히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1) 첩을 들이는 일은 부인을 맞이하는 것과 달라서 가문이나 집안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보통 남편이 혼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축첩은 남편이 가족이나 가문의 동의 없이 행하는 일종의 야합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189쪽.

여성을 첩으로 취하게 되는 경우다.

첩을 남성의 생물학적 욕구를 실현하는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데<sup>2)</sup> 첩의 존재가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서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문헌설화 속 첩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문헌설화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통해 첩들이 남성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볼 것이다.

첩을 소재로 하는 대표적인 설화들은 동일한 이야기가 많은 문헌에 중복되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문헌들 가운데 『기문총화』<sup>3)</sup>에 수록되

- 2) 첩의 존재가 과연 ‘많은 자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을까? 혈통 사회에서 많은 자식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첩의 자식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첩의 자식은 경제·정치적 분배 문제에서 오히려 분쟁의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첩은 그 자식을 의도하고서 설정된 존재이기보다 남성의 생물학적 욕망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아야한다.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006, 65쪽.
- 3) 김준형은 이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계통을 설정하고, 기문총화계통의 야담집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문총화계는 이미 ‘계서야담계’로 불려져 온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를 버리고 새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계서야담계로는 이 계통의 야담집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문총화계의 자료는 현재까지 48종이 확인되었다. 48종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계통의 작은 범주로 ‘계열’을 설정하였다. 계열을 설정하는 기준은 이야기의 수록 순서, 한 군(群)에만 나타나는 이야기, 그리고 필기류 혼재 여부에 두었다. 그 결과 기문총화계는 다시 ‘계서잡록 계열’, ‘기문총화 계열’, ‘계서야담 계열’로 삼분할 수 있다. 기문총화 계열은 현재까지 연세대 4권 4책 본이 가장 선본(善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4권은 앞의 세 권과 편찬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 원 『기문총화』는 3권 3책 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4권과 같은 형태로 쓰여진 1권과 비교해 볼 때, 편찬기준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기문총화』 1권에서 전대문헌을 수용할 때, 전대문헌에 ‘여(余)’나 ‘오(吾)’로 표기된 부분이 모두 객관적으로 바뀌어져 있으나, 『기문총화』 4권에는 ‘여(余)’나 ‘오(吾)’로 표기된 부분들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문총화』 1권에는 인정기술(人定記述)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으나, 『기문총화』 4권에는 오히려 인정기술이 축소되는 등 서술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기문총화』 4권은 『기문총화』 3권 3책이 형성된 이후 편찬자가 다시 부여한 것이거나 후대인이 첨가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기문총화 계열은 28종의 이본이 있다. 이들은 다시 연세대 4책 본이 중심이 되어 유전된 <B군(群)>과 동양문고 갑(甲)본이 중심이 되어 유전된 <A군(群)>으로 나뉘어 유전되어 왔다.” 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어 있는 첩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기문총화』에 수록된 첩을 소재로 한 설화는 15편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15편 가운데 6편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다.<sup>5)</sup> 대상 텍스트<sup>6)</sup>는 다음과 같다.

① <沈一松喜壽>, ② <禹兵使夏亨>, ③ <盧玉溪禛>, ④ <古有一宰相>, ⑤ <東岳李公>, ⑥ <楊承旨某>·<楊蓬萊士彦之父>

첩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첩을 소재로 한 설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 두 번째, 사대부가 남긴 문집 및 당대 사회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sup>7)</sup>. 첫 번째와 관련된 연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정

김준형은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기문총화가 전대문헌을 수용한 양상을 『기문총화』 1권의 필기 및 패설 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준형,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양상 - 『기문총화』 1권 筆記·稗說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26집, 한국문학회, 2000.

본고에서는 가장 선본으로 알려진 연세대 4책 본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이를 번역한 김동욱, 『(국역) 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2008을 참고한다. 『(국역) 기문총화』는 상·중·하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상 본문 발췌 시 권 호와 설화 번호 그리고 페이지만 표기하도록 한다.

- 4)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첩을 소재한 설화의 특징과 의미는 비단 『기문총화』 만이 가진 특징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기문총화』를 중심으로 한 것 일뿐 여기에 수록된 첩 소재 설화들은 다른 문헌에도 중복되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5) 대표적인 설화를 중심으로, 첩이 서사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설화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6) 『기문총화』는 설화의 제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문의 첫 부분을 따와 제목으로 표기한다. 또한 양사언 어머니와 관련된 설화는 두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취급한다.
- 7) 박무영, 『남편의 ‘잉첩(媵妾)’과 아내의 ‘적국(敵國)’』, 『문헌과 해석』 18, 문헌과 해석사, 2002, 135~149쪽.

조희선, 『한국가족에서 첩제도의 법제도사적 변화』, 『인문과학』 25,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183~193쪽.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6~42쪽.

리할 수 있다. 여러 문헌설화에서 첩을 소재한 설화를 뽑아 유형을 분류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 논의<sup>8)</sup>와 특정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설화를 대상으로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 및 변이양상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본 논의<sup>9)</sup>가 있다. 이 같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기존 논의와의 변별점을 찾고자 한다.

문헌설화에서 남성과 첩의 만남이 애정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2장에서는 남녀의 결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애정에 의한 결연과 상황에 의한 결연으로 나뉘어서 살펴본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65~90쪽.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2006, 349~380쪽.

8) 공은영, 『결연 야담 연구-계층간의 결연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채숙, 『조선시대 문헌설화집에 실린 축첩설화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최유미, 『야담집 소재 妾室談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9) 강영순, 『<일타홍 이야기>의 여성 지인담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89~124쪽.

김동석, 『야담집에 나타난 여인의 신분갈등과 적서차별』,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381~402쪽.

김대숙, 『양사언 설화 연구』,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4, 185~204쪽.

김준형, 『<옥소선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0호, 1988, 265~288쪽.

\_\_\_\_\_, 『근대 전환기 <옥소선 이야기>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205~228쪽.

이신성, 『<일타홍 이야기>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4, 한국한문학회, 1991, 139~180쪽.

\_\_\_\_\_, 『<옥소선 이야기>와 『월하선전』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2, 240~289쪽.

\_\_\_\_\_, 『<옥소선 이야기>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한국 야담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보고서, 2006.

다. 3장에서는 첩들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여성의 이런 적극적 행위가 남성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리고 남성의 결핍을 충족시켜 주는 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2. 첩과 남성의 결연 과정

### 2.1. 애정에 의한 결연

애정에 의한 결연이라 함은 남녀의 만남이 서로의 호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화는 <沈一松喜壽>·<禹兵使夏亨>·<盧玉溪禎>·<古有一宰相> 이다.

네 설화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沈一松喜壽><sup>10)</sup>

- ① 일송 심희수는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공부할 시기를 놓치고, 노는 것만 일삼았다.
- ② 심희수가 권 재상 집 잔치에서 일타홍을 만난다.
- ③ 일타홍은 금산에서 올라온 기생으로 당대의 독보적인 인물이다.
- ④ 심희수가 일타홍을 사모하여 그녀의 옆에 앉자 일타홍도 싫어하지 않는다.
- ⑤ 일타홍은 심희수의 어머니를 만나 그가 귀한 인물이 될 기상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이 보필하겠다는 뜻을 전한다.
- ⑥ 일타홍은 기생집에는 발을 끊고 심희수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그를 보필한다.

10) 중권, 제290화, 331~344쪽.

- ⑦ 일타홍은 심희수를 장가보낸다.
- ⑧ 심희수가 글 공부를 지겨워 할 때 쯤 일타홍은 심희수가 과거에 급제 하면 다시 만나겠다며 집을 나간다.
- ⑨ 일타홍은 노재상 가운데 안식구가 없는 집을 찾아가 그곳에 의탁해 수양딸이 된다.
- ⑩ 심희수가 과거에 급제하여 인사차 노재상의 집에 방문해 일타홍을 다시 만난다.
- ⑪ 심희수가 이조 낭관이 되었을 때 일타홍의 부탁으로 금산 고을 수령이 되어 금산으로 내려간다.
- ⑫ 일타홍은 부모를 만나 관가와 여염집의 차이를 말하고 관아 출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다.
- ⑬ 반년이 지나 일타홍은 심희수에게 자기가 죽거든 선영 아래 묻어달라는 부탁하고 죽는다.
- ⑭ 심희수는 벼슬을 그만두고 상여를 따라 금강으로 가다.

<禹兵使夏亭><sup>11)</sup>

- ① 병마절도사 우하형은 평산 사람으로 집안이 가난하였다.
- ② 우하형이 수급비를 사랑하여 첩으로 삼아 함께 살았다.
- ③ 우하형은 첩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빨래나 해주고 타진 버선이나 기워주면 좋겠다고 한다.
- ④ 첩은 우하형에게 그를 위해 의복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 한다.
- ⑤ 첩은 부지런히 바느질과 길쌈을 하여 의복과 음식을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
- ⑥ 우하형이 수자리의 기한이 다 차 돌아갈 때가 되니, 첩이 서울로 가서

11) 중권, 제296화, 382~393쪽.

벼슬자리를 찾을 것인지 묻는다.

- ⑦ 우하형이 선산에 묻힐 계획이라 하자, 첩은 용모와 기상이 예사롭지 않고 더욱 승진해서 병마절도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 ⑧ 첩은 10년을 기한으로 벼슬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은 천한 몸이라 수절은 불가하니 다른 곳에 몸을 의지해 있다가 평안도의 원님이 되면 다시 찾아뵙겠다고 한다.
- ⑨ 첩은 우하형과 헤어진 뒤 읍내에서 홀아비로 살고 있는 장교의 집으로 옮겨 산다.
- ⑩ 첩이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날로 재산이 늘어간다.
- ⑪ 첩은 조보를 통해 우하형이 평안도 수령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고 장교와 헤어진다.
- ⑫ 첩은 우하형을 찾아가고 우하형은 아내를 잃은 처지라 첩이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한다.
- ⑬ 첩은 본처의 이들을 보살피 양육하며 남녀종들을 부리는데 법도가 있고 위엄이 있다.
- ⑭ 첩은 조보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헤아렸다.
- ⑮ 우하형은 풍족한 고을에서 수령을 하게 되고, 살림살이가 점차 부유해졌으며, 80세에 가깝도록 수를 누리다 고향 집에서 생애를 마쳤다.
- ⑯ 첩은 집안 살림을 며느리(본처 아들의 부인)에게 맡기고, 거처도 안방에서 건너편 단칸방으로 옮긴다.
- ⑰ 첩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곡기를 끊은 지 며칠 만에 목숨을 거둔다.
- ⑱ 아들과 며느리 등이 모두 애통해 하며, 서모로 대접할 수 없다하여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
- ⑲ 우하형의 장례 날짜에 발인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를 들 수 없자, 소실의 상여를 마련하니 관이 들린다.
- ⑳ 평산 땅 큰길가에 두 사람을 장사지냈다.



<盧玉溪禎><sup>12)</sup>

- ① 옥계 노진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남원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였다.
- ② 노진은 당숙에게 혼수를 얻기 위해 선천으로 떠난다.
- ③ 나이 어린 기생이 노진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며 그곳에 거처를 정하라고 한다.
- ④ 노진은 당숙을 찾아가 혼수를 얻어 보려 했지만 거절당한다.
- ⑤ 노진은 기생의 집으로 가 동침하고, 기생은 노진에게 크게 출세할 상이라고 한다.
- ⑥ 기생은 노진에게 자신이 모아둔 은자 5백 냥을 주며, 가지고 돌아가라고 한다.
- ⑦ 기생은 노진이 10년 안에 귀하게 될 것이라 하고는 자신은 결백한 몸으로 기다리겠다고 한다.
- ⑧ 노진은 기생이 준 돈으로 아내를 얻고 집안을 꾸리고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다.
- ⑨ 노진은 평안도 지방을 순행하는 암행어사가 되어 기생을 찾아간다.
- ⑩ 노진은 기생의 어미에게서 딸의 행방을 알 길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⑪ 노진은 소문을 듣고 절간에 찾아가 기생을 만난다.
- ⑫ 기생은 머리를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불상 아래 엎드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지낸다.
- ⑬ 노진은 기생을 데리고 돌아와 평생 함께 살다.

<古有一宰相><sup>13)</sup>

12) 중권, 제302화, 428~435쪽.

13) 중권, 제305화, 459~471쪽.

- ① 옛날에 한 재상이 평안 감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외아들을 데리고 갔다.
- ② 감영에는 감사의 아들과 동갑내기 기생이 있었는데 용모가 아름답다.
- ③ 감사의 아들과 기생의 애정이 깊다.
- ④ 평안 감사가 서울로 돌아가게 되어 둘은 이별하였는데, 감사의 아들은 서울로 돌아와 글공부 중 기생이 보고 싶어 평안도로 길을 떠난다.
- ⑤ 평안 감사의 아들은 기생이 새 사또 자제 수청을 들러 갔다는 말을 듣고 알고 지내던 아전에게 부탁해 감영으로 들어간다.
- ⑥ 평안 감사의 아들은 설경을 구경하러 나온 기생과 마주치지만 기생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 ⑦ 기생은 새 사또 자제에게 아버지의 산소에 눈을 치우러 간다는 핑계로 나와 돈과 폐물을 챙겨 평안 감사의 아들과 함께 도망간다.
- ⑧ 기생은 평안 감사의 아들에게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부모님께 지은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며 글공부 뒷바라지를 한다.
- ⑨ 평안 감사의 아들은 과거를 보고 급제하여 다시 부모를 만나고 그 기생을 부실로 삼는다.
- ⑩ 그 기생의 이름은 자란(紫鸞)이고 자는 옥소선(玉蕭仙)이다.

네 설화의 공통점은 여성이 자기 스스로 남성을 선택하고, 그 남성이 출세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동일한 구조로 서사가 진행된다.

<禹兵使夏亨> - ‘만남(②)-이별(⑧)-만남(⑫)’

<盧玉溪禎> - ‘만남(③)-이별(⑦)-만남(⑫)’

<古有一宰相> - ‘만남(③)-이별(④)-만남(⑦)’

여성 인물들의 행위는 적극적이며, 남성과의 관계를 주도한다. 일타홍은 심희수를 자신의 배필로 선택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심희수를

보필하겠다는 뜻을 전한다. 선천기 역시 노진에게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수급비는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우하형에게 출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유한다. 옥소선도 남성에게 과거 시험에 임해 부모님께 불효한 것을 만회하라고 한다. 일타홍과 선천기 그리고 수급비는 지인지감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일타홍과 선천기가 각각 심희수와 노진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만남 이후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관계를 주도해 간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남성과 첩은 만나 이후 이별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 ‘이별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소선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별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모두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별을 선택한다. 여성들이 이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의 출세 때문이다. 일타홍은 심희수가 과거 공부에 매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집을 나가고, 수급비는 우하형이 더 높은 관직에 진출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별한다. 선천기는 노진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며, 과거 시험을 볼 것을 권한다. 여성들은 과거 급제 이후 또는 높은 관직에 오른 이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시간이 지나 남성들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높은 관직에 올라 헤어진 첩을 다시 만나는데, 이 때의 남성은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다. 이전에는 가진 것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반해 이후에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고귀한 존재가 된다. 여성의 존재는 그대로인 것과 대조적이다. 남성은 사회적 지위 획득 이후 다시 여성에게 돌아간다. 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여성을 받아 준다. 이때, 관계는 다시 설정된다. 남성과 여성은 과거 급제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과거 시험에 합격 한 남성에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약속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를 둘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다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남성의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다. 처

음에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남성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이번에는 남성이 주도적으로 여성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의 선택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성이 정식으로 첩을 맞아들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화 속 남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결핍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희수와 노진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라 집이 가난해, 자력으로는 과거 시험을 보거나 혼인을 하기 어렵다. 우하형은 집안이 가난해 더 높은 벼슬을 찾는 것이 어렵다. 평안 감사의 아들도 옥소선과 맹산으로 도망간 후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기에 무능력한 존재다. 그런 남성이 첩을 통해 결핍된 부분을 충족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 남성들이 갖는 결핍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 결핍은 양반 신분임에도 사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 상황을 급반전 시킬 외부적 요인이 없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하층 여성인 첩이 해결해 준다.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남성이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 2.2. 상황에 의한 결연

이 절에서 살펴볼 설화는 <東岳李公> · <楊承旨某> · <楊蓬萊士彦之父>이다.

<東岳李公 新娶後><sup>14)</sup>

- ① 동악 이안눌이 장가 든 뒤 대보름날 밤에 종소리를 들으러 운종가에 갔다.

14) 중권, 제247화, 105~109쪽.

- ② 이안눌이 술에 취하여 이동 앞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집 대문에 기대 누웠다.
- ③ 이안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본 남녀종들은 그 집 새신랑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 신방으로 이안눌을 데리고 간다.
- ④ 이안눌이 새벽에 잠을 깨어 보니 자기 처가가 아니라 놀라고, 옆에 있던 신부는 의심이 들어 이것저것 묻다가 자기 신랑이 아님을 알게 된다.
- ⑤ 이안눌은 신부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묻고, 신부는 자기가 꾸 꿈과 부합하고 역관을 지내는 집안의 무남독녀라 죽을 수 없으니 이안눌의 첩이 되겠다고 한다.
- ⑥ 이안눌은 자기 나이가 스물이 안 되었고 아직 과거에 오르지 못해서 첩을 드릴 수 없다고 한다.
- ⑦ 신부는 자신을 이안눌의 이모나 고모댁에 데려다 놓고 과거 급제 후 첩으로 맞아 가라고 한다.
- ⑧ 이안눌은 과거 급제 후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
- ⑨ 딸이 죽은 줄 알았던 역관은 딸이 살아 있음을 알고 기뻐한다.
- ⑩ 역관은 달리 자식이 없으니 집안의 재산과 노비, 농토와 집을 모두 이안눌에게 준다.
- ⑪ 이안눌은 장안의 갑부가 된다.
- ⑫ 이안눌의 소실은 현숙하고 지혜가 있다. 집안 살림살이나 남편을 받드는 데 부녀자로서의 법도와 범절이 있었다.
- ⑬ 이안눌의 집안은 부잣집으로 일컬어지고 소실이 낳은 자손들도 번성하였다.

이안눌과 역관 딸의 만남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 설화 역시 ‘만남(④)-이별(⑦)-만남(⑧)’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 제시한 설화들과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지만 남성이 출세하는데 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안눌이 과거 급

제를 한 후 양가 집안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린다. 여성이 무남독녀이기 때문에 처가의 재산은 모두 이안눌에게 상속된다.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 받은 후 이안눌은 처가의 재산을 통해 부자가 된다.

역관의 딸이 이안눌의 첩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고의는 아니지만 당대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혼인을 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으니 이는 그녀가 말한 대로 “여자의 도리를 따져 자결”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은 무남독녀라 그도 쉽지 않다. 여성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첩’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역관의 딸도 “낭군님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실 것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지인지감이 있는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앞에 제시된 여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 일타홍이나 선천기는 자신의 지인지감이 남성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이안눌의 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 설화에서도 이별의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별을 하는 이유 역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과거 급제 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양반 남성이 첩을 두는 행위가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시험을 보기 이전의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역관 딸이 첩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안눌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sup>15)</sup> 앞의 설화들에서도 남성의 과거 급제가 중요한 이유도 이와 같다. 아직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남성이 첩부터 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東岳李公>는 앞의 설화에서 보다 더 과거 급제가 중요하다. 앞 설화들이 애정을 기본으로 하여

15) “내가 고의로 범한 것도 아니었고, 자네가 음란했던 것도 아니었으니 권도를 따르는 것도 무방할 걸세. 다만 집안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평소 아버님의 가르침이 매우 엄하다네. 내 나이 아직 스물이 안 되었고 또 아직 과거에 오르지 못했네.”

형성된 관계인데 반해, 이안눌의 경우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기에 법률적,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이 여성은 더더욱 이안눌의 첩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안눌이 반드시 과거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안눌은 과거 급제 후 다시 역관의 딸을 찾아 첩으로 삼고 집안에 정식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알린다.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선물처럼 역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다.

『기문총화』에 <양사언 어머니 이야기>는 두 편<sup>16)</sup>이 수록되어 있다. 제241화 <楊承旨某>와 제288화 <楊蓬萊士彦之父>가 그것이다.

<楊承旨某><sup>17)</sup>

- ① 양공은 유람을 하던 중 안변을 지나다 농가에서 소녀를 만난다.
- ② 소녀는 양공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 ③ 양공은 답례로 선두항을 소녀에게 주고 떠난다.
- ④ 몇 년 뒤, 소녀의 아버지가 양공을 찾아와 딸이 남에게 물건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없다며 양공에게 시집가고자 한 뜻을 전한다.
- ⑤ 양공은 소녀를 첩으로 맞아 드리지만 다정하게 대하는 기색이 없다.
- ⑥ 양공이 며느리에게 집안이 예전과 달리 정돈되고 음식이 좋아진 이유를 묻는다.
- ⑦ 며느리는 안변 작은 어머니가 집안일에 힘쓰고 부지런하여 집안의 형세가 넉넉해 진 것이며, 첩에게서 사대부 여인의 풍모가 있다고 말한다.

16) 『기문총화』에 수록되어 있는 이 두 편은 <양사언 어머니 이야기>의 대표적인 두 유형의 설화다. 김대숙, 앞의 논문 참조.

17) 중권, 제241화, 62~84쪽.

- ⑧ 양공은 첩을 불러 수작을 해보고 그녀가 현숙하고 총명하며 식견이 있는 사람임을 안다.
- ⑨ 양공은 첩을 아끼고 사랑해 두 아들을 낳는다.
- ⑩ 첩은 아들들이 8,9세가 되었을 때 자하동에 집을 지어 따로 나가 산다.
- ⑪ 첩은 비를 피해 자기 집으로 들어온 성중에게 정성껏 음식 대접을 한다.
- ⑫ 성중은 첩의 아들 둘을 대궐로 데려가 세자시강원 임시 심부름꾼으로 임명하고, 총애한다.
- ⑬ 첩은 다시 큰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생을 마친다.
- ⑭ 첩의 큰 아들은 양사언으로 호를 봉래라 하였고 벼슬이 안변 부사에 이르렀다. 둘째 아들은 양사준이다.

<楊蓬萊士彥之父><sup>18)</sup>

- ① 양공이 영암으로 가는 길에 점심을 먹을 요량으로 민가를 찾다.
- ② 소녀가 밥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한다.
- ③ 소녀가 정갈하게 점심을 지어 올린다.
- ④ 양공은 여자 아이가 기특해 푸른 부채와 붉은 부채를 주며 장난삼아 납채이니 공손히 받으라 한다.
- ⑤ 소녀는 막중한 예물을 손으로 받을 수 없다며 보자기 위에 부채를 올려달라고 한다.
- ⑥ 몇 년 뒤, 소녀의 아버지가 양군수를 찾아와 딸 아이가 영암 군수에게 예물을 받아 다른 곳으로 시집 갈 수 없다고 한 얘기를 전한다.
- ⑦ 양공은 예를 갖추어 소녀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 ⑧ 양공은 흠아비라 소실을 안방에 거처하게 한다.
- ⑨ 소실은 음식과 의복에 관한 일을 주관하였으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18) 중권, 제288화, 313~320쪽.



- ⑩ 양공의 임기가 끝나 본가로 돌아갔을 때 첩은 본부인이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노비를 부리는데 도리를 다한다.
- ⑪ 양공이 죽어 일가친척이 모이자 첩은 양사언이 서자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여 아들이 적자로 살아갈 수 있게 자결하겠다고 한다.
- ⑫ 첩은 양군수의 관 앞에서 자결한다.
- ⑬ 양사언은 사대부가 할 수 있는 벼슬자리를 두루 거치면서 명성을 얻으며, 아무도 서자임을 몰랐다.

두 설화 내용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도 이야기의 기본 서사는 같다. 촌가의 어린 여자 아이가 우연히 자기 집에 들른 양반에게 정성껏 점심을 대접하고 답례로 받은 물건(선두항, 부채)을 예물이라 고집하며 그 양반의 집에 들어가 첩이 된다. 첩은 지극 정성으로 집안 관리에 몰두하고 그 덕분에 남편과 문중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다. 또한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이 설화 역시 ‘만남(①)-이별(③·⑤)-만남(④·⑦)’의 구조를 보인다. 여자 아이가 첩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양공이 선물로 준 물건 때문이다. 양공은 점심을 대접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선물을 전달한 것인데 여자 아이는 이를 예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양공의 첩이 되고자 하는 뜻을 밝힌다.

양공과 여자 아이의 만남은 양공이 우연히 그녀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면서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애정의 징후는 찾아 볼 수 없다. 역관의 딸이 이안눌과 의도하지 않게 잠자리를 하게 되어 첩이 될 수밖에 없던 것과 달리 촌가의 여자 아이는 반드시 양공의 첩이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양공이 첩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그녀의 집안 관리 능력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楊承旨某>에서 양공이 처음부터 첩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첩이 들어온 이후 집안의 형세

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난 후 양공은 첩에게 관심을 보인다. 양공의 정실 부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첩은 그 빈틈을 근면함으로 메꿔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첩의 행실은 결국 문중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으면서 가문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간다.

첩은 자신의 아들이 서자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한다. 첩을 소재로 한 설화에서 서자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설화는 서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첩은 지혜를 발휘에 자신의 아들을 임금의 눈에 띠게 하거나, 남편 상중에 자결함으로써 자신의 소생이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한다. 첩의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서자 문제에 대한 고민의 주체를 첩으로만 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첩과 서자 문제의 근원에는 제도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

### 3. 첩 소재 설화의 의미

#### 3.1. 여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한 남성의 수혜

지금까지 살펴본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 상층 남성과 하층 여성의 결연 과정에서 상층 남성은 양반이라는 신분 이외에 크게 내세울 만한 점이 없는 반면에 하층 여성의 경우 신분은 미천하지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먼저 다가와 관계를 맺는 행동은 남성이 여색을 탐해서 첩을 들였다는 시선을 빚겨가게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쪽은 여성이다. 여성이 먼저 남성을 선택하고 그 남성의 첩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출세를 적극적으로 돕고,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홀아비 양반의 첩이 되고 싶어 하는 행위에 대해 여성의 신분 상승 욕망으로 보이게 한다. 하층 여성이 상층 남성의 성공을 도와 그의 첩이 되어 신분 상승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하층 여성이 상층 남성의 첩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신분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층 여성이 상층 남성의 첩이 되는 이유 중 신분상승의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 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sup>19)</sup> 첩은 주지하다시피 집안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 집안 구성원 가운데 가장 하층에 존재하며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다. 그리고 첩의 자녀 역시 서자녀라는 이유로 적자녀와 차별받고 사회적으로도 차별이 심하다. 또한 죽은 이후 집안의 사당에 모셔지지도 않는 것이 첩의 삶이다.<sup>20)</sup>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양반 남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첩의 자리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정리하자면, 여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남성이 첩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이 여색을 탐해 첩을 들였다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양반 남성에게 접근해 그의 출세를 돕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여색을 탐하지 않고 과거 급제

19) 하층 여성 가운데는 양반의 첩이 되어 유족한 생활을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층 여성에게 있어 양반 남성의 첩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 상승이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85쪽. 그런데 문헌설화 속 첩들은 남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첩이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성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성공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 여성들에게 첩이라는 위치가 과연 신분 상승으로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 첩은 신분내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출제 집단은 상당히 미약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없었다. 첩과 남편의 관계는 살아 있는 동안에 한정되어 영속성이 없었다. 남편의 조상에 대한 의례적 의무가 없다는 데서도 첩의 불안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첩은 정기적인 제사로 기억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신주는 선대의 조상과 함께 사당에 배향할 수도 없었다. 첩은 가족의 일원이지만 가족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남편과 본처는 첩이 자신의 입지를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위계를 만들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0~191쪽.

이후 자신을 도와준 여성에게 돌아감으로써 은혜를 잊지 않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

### 3.2. 남성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첩

첩들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결핍 요소를 채워준다. 남성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결핍 요소는 경제적 결핍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결핍은 단순히 금전적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혼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대부 남성이 과거 시험을 치루지 못하고 정식으로 혼인 할 수 없다는 것은 크나큰 결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핍은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첩은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정적인 인물이다.

일타홍은 아버지를 여의고 학업을 닦지 못해 방탕하게 살아가는 심희수에게 엄한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 노진은 선천기의 도움으로 혼수를 마련해 장가를 가고 과거 시험을 보게 된다. 우하형 역시 수급비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다. 옥소선도 평안 감사의 아들을 뒷바라지해 과거 급제를 돕는다. 훗날 양사언의 어머니가 되는 촌가의 여자 아이는 스스로 양공의 첩이 되기를 바라는데, 부인이 없는 양공에게 안살림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때 첩이 되려고 하는 그 여자 아이는 양공이 놓인 상황에 잘 맞는 적합한 인물이다. 양공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내 늙어서 머리가 허영다네. (중략) 설령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오늘 널 죽게 되면 젊은 남자의 꽃다운 나이가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하는 양공의 발화와 그가 며느리가 있다 점에서 나이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후처로 들어올 여성이 마땅히 없다고 봤을 때 나이 어린 여자 아이가 자발적으로 첩이 되겠다고 하는 행위는 양공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또한 이

아이는 첩이 되고 난 후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집안 살림을 잘 관리한다. 이안눌은 역관의 딸을 정식 첩으로 맞아들인 후 그녀의 친절 재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된다. 과거 급제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부(富)도 함께 얻어 그의 취첩은 부와 명예를 함께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가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대상이 첩이다. 즉 첩은 양반 사대부가 원하는 욕망에 맞춰 그것을 채워주는 대상이다.

#### 4. 결론

조선 시대 올바른 혼인이란 중매를 통해 가문과 가문이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첩은 일반적으로 본처가 있는 상황에서 들이는 비정상적인 혼인 형태이므로, 들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첩의 결연을 애정에 의한 결연과 상황에 의한 결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만남-이별-만남’의 구조로 남녀가 결연하는 이야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다.

설화 속에서 첩은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처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극복하기 어려운 결핍을 타개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거나 남성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첩은 양반 남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환상적인 장치이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춰 다양하게 첩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3.1.에서 첩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 남성이 받는 이점에 대해 보았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남성을 도왔을 때 주어지는 첩이라는 지위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그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남성이 갖고 있는 첩에 대

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첩을 두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3.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하고 싶은 문제가 첩을 통해 해결된다는 설정 역시 남성들의 욕망이 내재된 것이다. 첩은 양반 남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환상적인 장치이다.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 다양하게 첩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치로 ‘첩’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문제가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첩은 외부에서 들어와 실제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처에 비해 관계 설정이 용이하다.<sup>21)</sup>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첩은 좋은 장치가 된다.

설화 속 첩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첩을 두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부각시켜 양반 남성의 축첩을 합리화 할 수 있다. 또한 서자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남성은 그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다. 즉 서자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첩이 가진 문제로만 한정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첩을 소재로 한 설화에는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남성들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는 『기문총화』 속 첩 소재 설화 중에서 몇 편을 골라 살펴 보는데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첩을 소재로 한 설화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또한 첩은 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처를 소재로 하고 있는 문헌설화를 함께 다룸으로써 처와 첩은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은 차후 연구에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21) 양반 남성과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여성은 처와 첩이 있다. 처는 자신의 위상으로 결정되는 자리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과 가문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처보다는 첩을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김동욱(金東旭), 『(국역) 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2008.

### 2.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182~195쪽.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006, 65쪽.

이신성, 『한국 야담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보고서, 2006, 1~310쪽.

### 3. 논문

강영순, 「<일타홍 이야기>의 여성 지인담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89~124쪽.

공은영, 「결연 야담 연구-계층간의 결연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동석, 「야담집에 나타난 여인의 신분갈등과 적서차별」, 『한문학보』 12, 우 리한문학회, 2005, 381~402쪽.

김대숙, 「양사언 설화 연구」,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4, 185~204쪽.

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7.

\_\_\_\_\_, 「<옥소선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0호, 1998, 265~288쪽.

\_\_\_\_\_,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양상 - 『기문총화』 1권 筆記·稗說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26집, 한국문학회, 2000, 57~83쪽.

\_\_\_\_\_, 「근대 전환기 <옥소선 이야기>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205~228쪽.

김현미, 『『기문총화』의 문학성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2004.

박무영, 「남편의 ‘잉첩(媵妾)’과 아내의 ‘적국(敵國)」, 『문헌과 해석』 18, 문

헌과 해석사, 2002, 135~149쪽.

박채숙, 『조선시대 문헌설화집에 실린 축첩설화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신성, 『<일타홍 이야기>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4, 한국한문학회, 1991, 139~180쪽.

\_\_\_\_\_, 『<옥소선 이야기>와 『월하선전』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2, 240~289쪽.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6~42쪽.

\_\_\_\_\_,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65~90쪽.

조희선, 『한국가족에서 첩제도의 법제도사적 변화』, 『인문과학』 25,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183~193쪽.

최유미, 『야담집 소재 妾室談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2006, 349~380쪽.



## [부록] 『기문총화』 속 첩 소재 설화 목록

설화번호(연대본)	설화 제목	설화 내용
241(2-58)	楊承旨某	현숙한 소실 덕분에 집안이 넉넉해진 양승지
247(2-64)	東岳李公 新娶後	술에 취해 남의 신방에 들어가 소실을 얻고 그 덕분에 부자가 된 이안눌
288(3-27)	楊蓬萊士彥之父	현숙한 소실에게서 태어난 양사언
290(3-21)	沈一松喜壽	일타홍의 내조로 과거에 급제한 심희수
296(3-35)	禹兵使夏亨	현명한 소실의 도움으로 출세한 우하형
302(3-41)	盧玉溪禎	기생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한 노진
305(3-44)	古有一宰相	눈을 흘며 옥소선을 다시 만난 평안 감사의 아들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ture Tales of the Joseon Dynasty about  
Concubine

- Focus on 『Kimunchongwha』 -

Yi, Hyang-ae

In this thesis, we are to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his concubine through a tale about a concubine out of the literature tales and to find out about the meaning of the tale.

They commonly say the reason that a man keeps a concubine is because of biological desire. Because a concubine is the object of relationship had by personal volition of a man, and because the status of women who become concubines is mostly low it is not very difficult to have relationship with them. However, in the tales when a man has a concubine biological desire is not at the center of a man's keeping a concubine.

Commonly 'a concubine' remind us of a woman who usually causes conflict between a man's wife and his concubine and is jealous of and slander the man's wife. However, in the tales, the occasions where conflict between a man's wife and his concubine appeared directly are very rare. A concubine appears in the relationship with a man.

A concubine supplements a man's deficiency to open the road to success for him. The common point that appears in these concubines is that they observe the Confucian norms. It is similar to the behavior of a man's wife, but in that a concubine cannot

bear offsprings who can succeed to a man's family she has a limit that she cannot have value same as that of a man's wife.

A concubine is an existence that supplements a man's deficiency and, at the same time, is an object of management and control to maintain the system of a man's family. Moreover, although a concubine cannot have the value same as that of a man's wife, a concubine's behavior to observe the Confucian norms is the aspect that makes aristocratic men manage their concubines easily.

Key words: 『Kimunchongwha』, Literature Tales, supplements of deficiency, concealed desire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